

부활 제 3 주일

기도서 285 면

제 1 독서 : 사도 3, 13-15 17-19

제 2 독서 : 요한 1서 2, 1-5

복음 : 루가 24, 35-48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목마른 나귀

박창신 신부

오늘과 같이 예수님을 찾는 갈증을 잃고 이 세상사에 만족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님을 목말라 찾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목마르지 않은 나귀에게 물을 먹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갈증을 잃은 나귀에게 물을 먹게 하기 위해 갈증이 심한 다른 나귀를 옆에 데려다 놓고 물을 아주 기분 좋게 듬뿍 마시게 하여 동료 나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수 밖에 없다. 함께 여럿이 식사를 할때 서로가 입맛을 돋구듯이...

복된 부활축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 더욱 심한 갈증으로 주님을 증거하여 이 세상을 만족하려는 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하겠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적으로 발현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만민을 상대로 구원활동을 전개하고 당신 주권으로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선포할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직분에 대해 말씀하셨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연구하여 증거로 삼아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라 하셨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와 선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한 사람들이다.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갈증을 느끼는 나귀처럼 그리스도께 갈증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도들의 증언이 실려 있는 성서와 교회의 전례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주님께 한없는 갈증을 가질 수 있다.

성서와 전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다. 숲이 동행하시던 주님은 지나가는 길손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을 들어 예루살렘 예수사건을 설명하실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 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빵을 나눌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여 그분을 증언하게 되었다.

매일 매일 사도들의 증언인 성서는 읽혀지고 빵을 메는 미사 전례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가까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거룩한 갈증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확실히 주님의 말씀과 성체가 우리 삶과 일치될 때, 주님처럼 우리 자신은 이웃과 나누게 되며 이웃은 우리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주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善戰의 場이 아쉬워

지난 주일에 전주에서는 돈이 걸린 권투시합이 있었다. 예상을 뒤엎고 도전자가 선수권을 따냈다. 누가 더 센가는 역시 겨루어 보아야 알 일이다. 힘과 기량이야 어떻게 너무나 치절하게 챔피언이 침몰당하고 말았다. 가끔 챔피언은 어린 도전자에게 매달렸다. 더이상 진행 시켜야 선수만 축날 시합을 주심은 제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해설자가 안타가와 했다. 프로 경기가 그럴 수 있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았다.

운동경기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쌍방이 똑같은 조건에서 해내야 한다. 텃세가 있어서도 안되고 홈그라운드 의 잇점이 있어서도 안된다. 다만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선전(善戰, fair play)을 기대 한다. 그리고 승부에 대해서 승복하고 상대방에게 축하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도량 넓은 태도를 바란다.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가끔은 충돌하기도 한다. 서로의 주관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차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표시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제 3자도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명정대한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선입견없이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을 설복시키기 보다는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시라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얼버무리거나, 상대방을 자기 틀 속에 넣으려 해서도 안된다.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숲 정 이 산책



최 기식 신부 구속에 대한 주교회의 담화문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최근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교형자매 여러분에게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언론을 통한 사진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가톨릭 교회를 불온 집단의 온상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면서, 마치 최 기식 신부를 방화의 배후 인물 또는 좌경의 식화 교육의 주관자로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언론자유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과장 보도의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 사이에 불신감과 위화감을 조장해온 일련의 보도 사태를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 당국이나 언론이 여론을 오도하여 교회를 비방해오더라도, 교형자매 여러분께서는 순교로 접철된 200년 교회사에 뿌리박은 우리의 신앙을 의연히 지켜가시리라 믿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기도와 일치로써 깨끗하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사제적의 근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가톨릭 교회의 사제는 그가 누구이든 방화를 교사할 수 없으며, 좌경의식화 교육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돌을 던지거나 밀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제의 신원입니다. 이번 방화 사건과 관련하여 교회를 찾아와 그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본인들의 뜻에 따라 당국에 자수를 주선했던 최 기식 신부의 행위는 사제로서 최선의 길이었음을 우리 교회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광주 사태로 말미암아 쫓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준 사제들의 양심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공익이나 제 3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확실시되지 않는다고 양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앙인은 도움을 간청하는 범법 혐의자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광주 사태는 그 진상과 원인 또는 책임의 소재가 공정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사제들은 자신의 사제적인 양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해온 혐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신앙 안에서 양심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교회가 어떠한 특권을 주장하거나, 사회의 실정법을 경시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양심법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실정법에 위배되었다면, 그 실정법에 따른 처벌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법을 따르다보면, 국사범이나 국가 보안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교선열들이 모두 국사범으로 처형되었고,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양심법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사범으로 처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국가의 소중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곧 국가라거나, 또는 정권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져 공산화되고 만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다"는 말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두려워 모든 국민이 정부에서 시키는 말만 반복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공산 독재 국가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구석에까지 밀고자가 침투되어 있는 불신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 상호간에 믿음을 조성하지 못하고, 오직 물리적 힘과 공포로써만 외적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회는 그 내부로부터 분열되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의 오도된 여론으로 마치 우리 국민이 그러한 사회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진실하게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날 광주 사태와 김 대중 사건 등, 불행한 시대를 살아온 겨레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 넘어 나라와 겨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오직 사랑과 화해의 정신으로, 정의와 관용을 바탕으로, 무시대를 청산할 것을 촉구해 온 것입니다.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 화합의 염원이 균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 당국은 위늦게 최 기식 신부 개인의 범법행위로 문제를 국한시키려 하고 있으나, 사건의 경위나 성격 그리고 사제의 신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사제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재판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 기식 신부와 모든 피의자들이 올바른 법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 받는가를 통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최 기식 신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모든 사제의 수도자 그리고 은 교회가 직면해 있는 이 시대의 고통과 위협으로 겹쳐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또한 모두가 한 형제인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희생된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폭력사태의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참으로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느님의 나라를 향하며, 오늘의 현실이 강요하기 쉬운 권력과 금력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러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를 본받아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짓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산업사회의 그늘에서 인간의 권리를 빼앗긴 채 자신의 목소리마저 잃어가는 노동자 농민들의 편에서 서서, 우리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끝까지 지향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정부 당국이 참된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광주 사태 및 학원 사태 관련자들의 전면적 사면과 아울러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모든 양심 수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죽음의 암흑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하느님께, 우리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를 간구하여야 하겠습니까.

1982년 4월 15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 위원회

우리는 주교단 담화문을 적극 지지하며 그 뜻에 한 마음으로 일치한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가톨릭 농민회 교구 연합회



가톨릭 신앙(예비신자 교리) 강좌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고

메마른 곳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리라”(이사야 44, 3)

- 가톨릭교회(천주교)에 입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 신앙강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을 위하여 통신교리도 실시합니다.
 - 가) 신청기간 : ① 제 1차-3월 23일~4월 25일 ② 연중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나) 신청방법 : “예비신자 등록 신청서”(가톨릭센터에 비치되어 있음)를 제출하시던 됩니다.
 - 다) 접 수 처 :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터 교육부
 - 라) 강좌시작 : ① 제 1차-5월 9일 <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 ② 개별적으로 개강일자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자들은 가까운 이웃에게 이 교리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것은 가톨릭센터 교육부 전화 ②004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서 강 좌

1. 베델성서(제 3기)

성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며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 하도록 돕는 강좌입니다.

- 모집기간 : 3월 29일~4월 30일까지 ※ 요일은 회원들의 편의상 변경될 수 있음.
- 개강일시 : 5월 10일 <월> 오후 7시 30분(주 1회 1년)
- 강 사 : 범 석규 신부님
- 수 강 료 : 월 1,000원(교재대금은 12,000원)
- 장 소 : 가톨릭센터

2. 베소라 성서(제 1기)

6개월 기간으로 신·구약성서 입문을 체계있고 보다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성서강좌입니다. 성서를 보다 깊게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 모집기간 : 3월 29일~5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5월 11일 <화> 오후 7시 30분(주 1회 6개월)
- 강 사 : 김 정원 신부님
- 수 강 료 : 월 1,000원(교재대금은 별도)
- 장 소 : 가톨릭센터

□ 「아가페」 정양원(양로원)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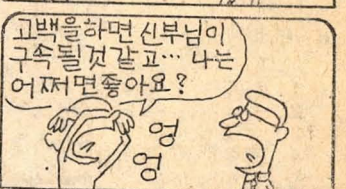
황동 한적한 농장에서 귀한 여생을 가다듬고 계시는 서 정수 신부님(은퇴사제)께서 금번 노심조사 정성 쏟은 한양식 건물 한 채를 마련, 새 양로원을 개설하고 고독한 노인들을 초대(모집)하고 있다.

관상 농원에 빈틈없이 갖춘 난방시설 등 아늑한 처소에서 성모영보회 수녀님들의 보살핌이 따뜻한 본 정양원의 응모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생활에 알맞는 60~70세의 여성
2. 4월 중으로 신청 바람(선착순 결정)
3. 일차 면접후 소정일에 입원함

모집장소 : 익산군 황등면 울촌리 185 아가페 정양원(전화 황등 220번)
 (이리→황등 삼거리→과수원 하차→정양원)

요심이(455) 김병오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일 공부 집집마다 배달함.

일 일 공 부

남원 동문사거리
 동문 세탁소 옆

(주) 장 레지나

연락처 전 화 3208번

□ 개 입

“교우님들의 사업에 「節稅」로서 봉사코저 합니다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가톨릭센터 221·222호실>
 전화 ③ 6604

“교우님들에게는 언제든 지 세무에 대하여 무료 상담하여 드립니다.”
 세무사 이환영(아오스딩)

공장포 구입 심부름(상설 할인 백화점)

정 주 심 부 림 백 화 점

TV(266,240원), 냉장고(266,040원), 밥통(11,000),
 단스(36,000원), 책장(39,000원), 쇼파(6~15만원),
 침대(11~14만원), 신발장(2만원), 사무용 철재일체,
 혼례용 장농(티크 12~15만원), 백통·원목·공예·
 자개·결기장

정읍 터미널 앞 전화 7196·8556 와서 보시오
 손 안 드 레 아(기영)

◀ 직원모집 ▶

가톨릭 센터에서 복음정신으로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격 : 천주교신자, 여성
 제출서류 :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마감 : 4월 28일
 근무처 : 식당 카운터
 기타문의는 전화 ②0041-2
 가톨릭 센터

* 커피 專 門 店



전신전화국 앞, 임금님다방 2층
 ☎ ⑤ 011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2지구(군산) 울뜨레아 : 일시-4월 25일 오후 2시, 장소-월명동 분당
2. 여성 제13차 꾸리실로 동창회 : 일시-4월 25일 오전 10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3. 제 1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 일시-4월 25일 오후 2시, 장소-부안분당, 강인찬 지도신부님
4.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5월 3일 오후 7시, 가톨릭센터에서
※ 군중후원회에서는 지난 부활절에 전주교구 군중신부님을 위해 후원금 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광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 사도행전 6장~9장, 요한 6장
 - 1. 프람치스코 형제회 : 오후 2시 강당
 - 2. 목자반 입고 봉헌식 : 10시 30분 공식미사 중
 - 3. 미사시간 변경 : 매일 미사 한대 뿐, 월요일·수요일은 오전 6시,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7시, 금요일은 오전 10시30분, 토요일·일요일 중전과 변함 없음
 - 4. 어린이 영세 : 미취학 어린이 4월 30일<금> 10시30분 미사후에 4월 10일 영세하신 분의 어린이는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 5. 주일학교 성지순례 : 5월 5일<수> 중앙성당 집합 오전 6시30분, 출발 오전 7시
 - 6. 부녀회 일일피정 : 성지부녀회·어머니 성가대·사마리아인회·자모회-29일<목> 가톨릭센터 10시부터 감사헌금-강화자(5천원), 유안젤라(2천원)
- 지난주 봉헌금 : 627, 327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수녀님들 베소라 섬서강의 : 매주<월> 오후 2시~4시
 3.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사도행전 전체
 4. 다리리 공소 축성미사 : 오늘 오전 11시 30분(현지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 남자 예비자 교리 : 매주<목> 저녁미사 후
 6. 학생 예비자 교리 : 매주<토> 오후 4시
 7.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8. 켈 모임 : 매주<토> 오후 5시
- 지난주 봉헌금 : 321, 78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예언자의모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 오늘 오후 2시 단원 및 협조단원 전원 참석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화 : 40명 참석 모든 분들의 기도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주일학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일요일 2시 교리, 3시 미사입니다
 4. 미사시간 변경 : 5월부터 화·오·일-저녁미사 8시 주일미사-오전9시가 8시30분으로, 주일 오전 6시가 5시30분으로
 5.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소회장·구역장·반장·사도회임원 꼭 참석하세요
 6. 부녀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꼭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73, 600원

(복자)

전화 ④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5월은 성모성월 : 매 미사후 공동으로 기도 바칩니다
2. 사도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첫 칠례7 : 5월 1일 저녁미사
3. 첫 칠례5 : 5월 1일 저녁미사
4. 병자봉성체 : 4월 27일<화> 병자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연락바람
5. 자모회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6. 주일학교 소풍 : 5월 1일<토> 오전 9시30분 출발(치명자산), 도시락과 물(음료수)을 꼭 지참할 것)
7. 미사시간 변경 : 새벽미사 5시30분, 저녁미사 8시
8. 성소지망 학생(남자 고등학생) : 관심있는 남자 고등학생들은 5월 6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람 16일·23일 신학교 견학, 교통비 식대 일체교구 부담

9. 돼지저금통을 속히 사무실에 내주세요 ※ 반회장님들 나누어 준 저금통을 거두어 주세요
- 다음주 전례 : 안경래, 독서 ①박상기 ②이갑진
□ 지난주 봉헌금 : 339, 770원

(서학동)

전화 ⑤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두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이가타리나 수녀님 영명축일 : 4월 29일<목>
 3. 분당 할머니들을 위한 벚꽃놀이 : 금산사 박경환(마태오)씨 버스 2대, 성심회원들 수고 많았음
 4. 부활절 영세자들 사진 찾아가십시오
 5. 레지오 옥의행사 일차 변경 : 6월 14일 새벽 6시출발 장소-미리내, 회비-1인당 5천원 단원의 신자도 가실분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 바람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함문권 ②이희옥
- 지난주 봉헌금 : 226, 165원 교무금 : 186, 000원

(숲정이)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⑥9567 사도 회장 김수길

1. 사도회 월례회 : 5월 2일 공식미사 후
 2. 구세주의 모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 25일 오후 7시30분
 3. 성 프람치스코 영화 : 25일 밤 8시 숲정이 성당에서
 4. 미사시간 변경안내 : 주일 아침미사-6시, 공식미사-10시, 주일학교 아동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밤 7시30분, 평일미사-밤 7시30분, <금·토>-각 7시, 꼭 없으시기 바람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홍성조 독서-이동선·이중상, 기도-박해근
 6. 미사참례자 안내 : 이천남·방창주·신종남·백옥남·이명자·이명희
- 지난주 봉헌금 : 442, 780원

(전동)

전화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②3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 다음주 8시30분 미사후
 4. 미사시간 변경 : 주일미사·평일미사-아침 5시 30분·저녁 7시30분
 5. 신축기금 신앙자명단 : 박도식(15만원), 장금배(10만원), 최병수(10만원), 이현재(5만원), 김보순(5천원)-김은수(만원)
 6. 다음주 전례담당 : 아침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이현재 ②김창선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희 ②박도식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주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560, 960원

(파티마)

전화 ⑦0915 주임 신부 김영빌
사도 회장 황희상

1. 전례분과 위원회 : 오늘밤 미사후에 있습니다 문대현·유승렬·박장래·박용하·이윤·이현자·이순례
 2. 사도회 상임위원회 : 다음주에 있습니다
 3. 성모회 월례회 : 다음 금요일
 4. 기사회 : 다음 토요일
 5.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 화·목·일-10시 미사후, 목·화-저녁미사 후와 오전 10시
 6. 섬가대 : 매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음
 7. 원우 수집이 상담수 모집되어 오늘 미사후 경쟁원에 전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 수녀원과 유치원에 전화가설 : 전화번호 ⑧4804
- 지난주 봉헌금 : 209, 480원 교무금 : 158, 000원